

일 주 문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의밤 동국대 불교학과 총동문회장 홍파 스님은 12월 11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엠 버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의밤 행사를 개최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조계종자원봉사단장 보경 스님은 12월 5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중특별교구지원금 기탁 서울 구릉사 주지 각성 스님은 12월 4일 군인들에게 전달할 핫팩 지원금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지정기탁했다.



산청 보림선원 동계철야정진 산청 보림선원 주지 청봉 거사는 12월 27일 오후 9시부터 2015년 1월 2일 오전 7시까지 일주일 동계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55)972-9555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안창례·하도겸

참여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봉사자 안창례(80)씨와 뉴시스 칼럼니스트 하도겸(45)씨가 선정됐다.

해인승가대상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해인승가대 총동문화, 11월 26일 정기총회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화(회장 정우)는 11월 26일 조계종 제25교구부사 봉선사 청풍루에서 '2014년도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각 활동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과 공로가 인정되는 동문 스님을 시상하는 해인승가상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해인승가상 대상에 월운 스님(동문 1기, 봉선사 조실), 화공 스님(동문 15기, 부산 범어사 내원암), 해일 스님(동문 23기, 사천 달마사 주지), 일해 스님(동문 38기, 중국 북경 해인선원)을 선정, 상패와 상금을 각각 전달했다.

대상을 수상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우리 종단 정화의 이념이 도제 양성, 역경 사업, 포교 사업 세 가지다. 세월이 흘러 강원이 생겨 졸업한 스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가 되듯이 동문 스님들이 불교 교화를 발전시켜 교회가 직접 불교 수행에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힘써달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수승함 알려진 열정·노력의 산물”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언론인상 수상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조재희)가 주관하는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월간 <유심> 주간이기도 한 홍사성씨는 1982년 불교신문 기자로 입사해 신문, 방송, TV, 잡지, 저서 등을 통해 정법의 당간지주를 세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사성 주간은 “불교 언론에 몸 담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최선의 성과를 이뤘는지 아직도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부채감 털어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2번째를 맞이한 ‘불교언론문화상’ 신문 보도 부문에는 본지 신종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만해의 길을 가다’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만해 스님의 생가 충남 홍성부터 백담사, 옥고를 겪은 서대문형무소, 열반처 심우장까지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봄으로써 스님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고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우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본지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연재됐다.

신종일 기사는 “취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스님의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쇠에서 생긴 녹이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는 법구경의 경구를 신조삼아 열정을 가지고 기사 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불교 언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불교언론인상에는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이 선정됐다.

이밖에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으로는 KBS부산 부처님오신날 기획 ‘항일결사, 선불교를 지켜라’가 선정됐으며 신문부문에는 현대불교신문사 ‘만해의 길을 가다’ (최우수상), 법보신문사 ‘조계종 개혁신년 끝나지 않은 여정’ (우수상)이, TV부문에는 BTN의 ‘붓다의 식사’ (최우수상), 아리랑국제방송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 (우수상)가, 라디오부문에는 KBS 월드라디오 부처님 오신날 특집 ‘산사에서 하루’ (최우수상), BBS ‘툼비니동산’ (우수상)이 각각 수상 의 영광을 안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제2 불광운동 전개해 전법·포교 활성화 기여”

포교원, 12월 9일 포교대상 시상 지홍 스님 대상 수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6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및 사부대중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과보고, 수상자 영상, 포교대상 시상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교대상은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사진 오른쪽), 공로상(총무원장상)은 대원 스님(천안 각원사 주지)과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최정수 서울 봉은사 신도회장,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고문단장이 수상했다. 또한 원력상(포교원장상)은 환성 스님(세종 영평사 주지), 무구 스님(남양주 백전사 주지), 일운 스님(울진 불영사 주지), 신호승 인천파리마타청소년연합회 사무처장,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진정순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연맹장,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교직원복지회 ‘연우회’가 받았다.

이날 포교대상을 수상한 지홍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제 스승인 광덕 스님의 위덕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스승께서 이뤄놓으신 토대 위에 법당 불사를 조금 했을 뿐”이라며 “이 상을 준 것



은 앞으로 전법불사에 나서라는 의미로 알고 불광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제2의 불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이날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지난 해 11월 라오스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상에 있는 조한국 파리마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에게 보시할 것을 약속해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수상한 분들은 붓다의 삶처럼 살고자 하는 원력이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 온 결과이기에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우리모두 이들을 귀감삼아 우리는 스스로 멋진 주인이고 본래 청정한 존재로서 무생명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포교사’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고종 제 13차 법계 품서식 선암사서 봉행

종사, 종덕, 대덕, 중덕, 선덕 등 총 141명 법계 품서

태고종 제13차 법계품서식이 12월 3일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제 13차 법계품서식은 종사이온,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총무원 부원장 호명스님 봉독), 인사말씀 및 경과보고, 법계증 수여, 상장 수여, 법어, 치사, 축사, 공지사항, 사후서원, 전체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시위원장 동우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제 13차 법계품서식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법계고시 응시자 총170명 중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한 141명이 합격했음을 고지했다. 종사(宗師, 제 1급)는 14명, 종덕(宗德, 제2급) 32명, 대덕(大德, 제3급) 38명, 중덕(中德, 제4급) 43명, 선덕(善德, 제5급) 14명이다.

법계증 수여식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종사 법계 품수자 스님들 한명 한명에게 법계증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종덕 원성 스님, 대덕 법원 스님, 중덕 대산 스님, 선덕 해선 스님이 각 법계 대표로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으로부터 법계증을 받았다.

또한 이번 법계고시에서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품행을 보인 청와 스님(포항 세심사 주지)에게는 상장이 수여됐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이 세 곳에서 마하가섭 존자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삼처전심(三處傳心)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부처님께 삼처전심을 하시고 열반에 드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오늘 새로운 법계를 받는데 법계가 높아질수록 수행과 처신을 더욱 잘하여 한국불교 태고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치사를 통해 “법계 품서식을 통해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니고 이(理)와 사(事)가 결립이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이자 본종의 사상인 통불교의 정신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종단의 승풍이 더욱이 진작되고 위계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조계종 진신사리 석가탑 봉안 대법회

현대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동화)은 11월 30일 총본산 대전 동구 보광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석가탑 봉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보광사에 조성된 진신사리 석가탑은 총무원장 동화 스님이 네팔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동화 스님이 직접 탑신의 법구를 적어가며 4년 여동안 불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을 비롯한 중단임원 및 종도, 대전불교사암련회장 도연 스님, 한택대 대전 동구청장 등 사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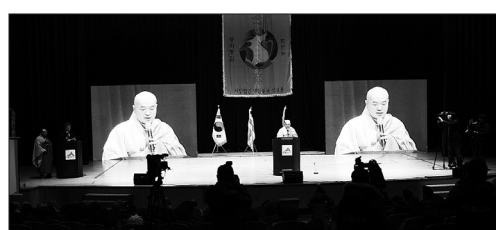


중 400여명이 동참했다. 종정 벽운스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극정성 정진한다면 전쟁 약업을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선교종 ‘제2회 전국통일기원대법회’ 봉행

대한불교선교종(총무원장 삼주)은 12월 2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전국 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총무원장 삼주 스님, 부원장 상원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일봉문도중앙회 회장 송산 스님, 자비실천 나눔회장 광명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임성정 세종시 의회의장, 김영석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했다. 법운 종정 스님의 통일염원에 대한 법어에 이어 총무



원장 삼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시대의 당면과제인 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중,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